

# 그리스도인의 교리

조 동 호 번역

CHRISTIAN  
DOCTRINE



A BOOK OF  
BASIC BELIEFS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그리스도인의 교리

조 동 호 번역

CHRISTIAN  
DOCTRINE



A BOOK OF  
BASIC BELIEFS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 CHRISTIAN DOCTRINE

## A Book of Basic Beliefs

Fifth Printed by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5664 Cheviot Road  
Cincinnati, OH 45247  
May 1998

Dong Ho Cho, Trans.

Christian Church Studies, 2000, 2009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머리말

## Foreword

1991년 짐바브웨(Zimbabwe)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 기간에 젊은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회의 가르침들을 포함하는 연구 서적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청원이 교회들의 젊은이들로부터 있었다. 그 일이 있기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지도자들과 잠재적인 교회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연구 서적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쇼코 미션(Mashoko Mission)의 선교사들, 특히 데이비드 그럽스(David Grubbs), 피터 그럽스(Peter Grubbs), 그리고 질 쇼(Jill Shaw)가 공동노력을 기우려 이 원고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는 짐바브웨 마스빙고(Masvingo)에서 중앙아프리카선교 문서전도국(the Central Africa Mission Evangelistic Literature Service)에 의해서 출판되었다. 수년간 이 선교출판사는 프랜시스 존슨(Frances Johnson)의 감독아래 있었다. 그 책은 내용과 구성 모두에 크게 감명 받았던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책임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것이 미국의 교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그것을 미국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여 받아냈다. 최소한의 수정편집만으로도 그 책의 대부분은 미국인 독자에게 더욱 적합한 책이 될 수 있었다.

이 책에 관한 흥미로운 측면은 저자들이 여러 성경교사들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고(故) 조지 마크 엘리엇 교수(the late Professor George Mark Elliott)의 미출판 저술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엘리엇 교수는 수년간 그리스도인 환원 협의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의 신실한 이사였다.

이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기본교리들을 가르치는데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

달리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신국제개역(NIV)이 사용되었다.

© Copyright

C.A.M.E.L.S. P.O.Box 231, Masvingo, Zimbabwe

1992

Fifth Printed by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5664 Cheviot Road

Cincinnati, OH 45247

May 1998

## 차례

머리말 .....	3
제1장 성경의 하나님 .....	7
제2장 아버지 하나님 .....	13
제3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	19
제4장 성령 .....	25
제5장 성령의 특별 은사들: 방언, 예언, 신유 .....	29
제6장 성경, 하나님의 말씀 .....	35
제7장 성경의 교회 .....	39
제8장 신약성경에서 시행된 침례 .....	43
제9장 주의 만찬: 새 언약의 상징 .....	47
제10장 주의 날: 자유를 기념함 .....	51
제11장 십일조와 헌금 .....	55
제12장 교회의 통치 .....	59
제13장 교회의 선교 .....	63
제14장 교회의 사역들 .....	67
제15장 공동예배와 개인예배 .....	71
제16장 영원 .....	75
부록: 침례 .....	79
역자후기 .....	85



## 제1장

## 성경의 하나님

## The God of the Bible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 해, 달, 지구, 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시 19:1). 사도 바울은 강우(降雨), 곡식추수, 심지어 인간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기쁨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한다고 말하였다(행 14:17). 바울은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지상에 거주하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행 17:26-27).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롬 1:20).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고의로 잊어버렸다(롬 1:25,28).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인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는 그분의 정확한 계시이다(히 1:1-3).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 위에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와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 우리가 예수와 그분의 교회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지식을 포기하였을 때(롬 1:25,28),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새로운 사상들을 발전시켰다. 어떤 이들은 나무들과 산들과 강들 속에 살았던 정령(精靈)들을 섬겼다. 다른 이들은 동물 속에 살았던 영들을 섬기거나 조상신들을 섬겼다. 헬라인들과 같은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갖고 있었다. 우상

들이 나무와 돌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특별한 권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렘 10:3-5,14-16).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 1.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신(神)들이 시작된 때를 알고 있다. 이집트의 신(神), 라(Ra)는 “나는 자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무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항상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예수 또한 그분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요 8:58)고 하셨다.

성경은 다음의 말로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 1장 1-3절이 뜻하는 바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모세는 말하기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 90:2)고 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계 1:8). 항상 계셨던 하나님은 결코 마지막이 없으실 것이다.

### 2.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보다는 오히려 사람에게서 발견되기를 기대하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품성들을 갖고 계신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에 관해서 말한다. 그분은 사랑하시

고 인내하신다(요 3:16; 벰후 3:9; 롬 5:6-8; 요일 3:1). 그분은 질투하신다(출 20:4-6; 고전 10:22). 그분은 온유하시다(사 40:11).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단지 몇 가지 품성들에 지나지 않는다.

### 3.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순수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아무 것도 없으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악도 있을 수 없다(사 6:3; 벰전 1:15-16; 례 19:2; 계 4:8).

### 4.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다(시 115:3; 사 43:13; 마 19:26). 그분 안에는 어떤 약함도 없으시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이상의 권능을 갖지 않는다.

그분은 전지하시다(히 4:13; 요일 3:20; 잠 15:3). 그분의 지식은 매우 커서 인간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어리석음이다(고전 1:20).

그분은 무소부재하시다(시 139:8; 행 17:27). 그분의 영은 어느 곳이나 계신다. 그분이 아니 계신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다.

### 5. 하나님은 세분 인격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들 속에서 발견되신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나 그것이 그렇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

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드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이 가르침에 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설명도 인간의 경험 속에는 없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신앙단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 인격들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그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신앙단체들도 있다. 그들이 유대교 신앙, 이슬람, 여호와증인(파수대), 몰몬교(말일성도) 등이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우주창조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 하자”(창 1:26)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요 1:2-3)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골 1:16-17)고 하였다. 바울은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빌 2:6). 우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단수)으로 침례를 주라는 지시를 받는다(마 28:19).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장(章)들에서 좀더 배우게 될 것이다.

### 요약

성경의 하나님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인격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지만 세 인격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발견되신다. 그분은 다른 어떤 신들을 허용치 않으시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에게 복종하며, 그분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목적은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이 그분의 영원한 임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 보충연구

1.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다음의 성구들을 심사숙고하십시오. 신명기 4:39; 역대기상 29:12; 욥 9:12; 시편 29:10; 47:2; 83:18; 93:1; 135:6; 다니엘 2:20; 4:35; 마태복음 6:13; 사도행전 17:24; 로마서 9:19.
2.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벧전 1:15-16)?
3.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누구인가? 2절, 14절, 18절을 설명하십시오.
4. 우리가 예수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이 진리를 지지하는 다른 성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십시오. ■



## 제2장

## 아버지 하나님

## God, The Father

예수께서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가장 자주 쓰신 표현이 “아버지”였다. 그분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생각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창조주나 재판장 또는 공급자로 생각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을 성부(聖父)라 부르는 개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것 가운데 하나이다.

구약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특별한 관계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려지고 있다(호 11:1; 사 1:2; 신 1:31; 8:5). 예수의 생존기에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8:33,53)로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기를 더 좋아하였다.

## 아버지와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부자관계와는 다르다. 예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요 14:28)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우월성을 인정하셨다. 그분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였고(요 15:21;16:5), 그분을 가르치신 분도 아버지였다(요 8:28).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다 예수의 손에 넘겨주셨다(마 11:27; 요

3:35). 하나님은 예수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주셨고(요 17:8) 수종들 천사들까지 보내주셨다(마 4:11; 눅 22:43). 아버지는 침례식(마 3:17) 때와 변화산(마 17:5)에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예수는 기도하실 때에(요 17:1), 설교하실 때에(요 5:43),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마 21:37)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예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요 15:23)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우월성이 있었기는 하지만(요 14:28), 예수의 설교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인정했던 그런 동등함이 또한 있었다(요 5:18). 그것은 예수께서 주장한 동등함이 아니라, 그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동등함이었다(요 15:10; 빌 2:6; 히 5:8).

###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해야하며, 순종의 자녀로서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 6:9)라고 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분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관계이다(시 103:13; 마 5:44-45).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들을 입양하셨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롬 8:12-16). 예수께서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다(요 8:34-35). 우리의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의 창조주이시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갈등상황 때문에, 부자관계를 맺지는 않는다.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을 “죄에게 종들”로서(롬 6:6,16-17,20) 언급하였다. 그는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요”(행 13:10)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요 8:44)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그분과 본래 가졌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에 관한 일종의 담화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 1:26) 지음을 받았다. 지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예수는 사랑의 아버지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눅 15:11-32). 그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당신께로 돌아와 순종하는 아들이 되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가를 본다. 이 구속의 사역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 질문이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나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다”(요일 3:10).

*하나님의 자녀는 다음과 같다.*

- (1)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요일 3:7-10).
- (2)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요일 3:10).
- (3) 예수를 주(主)로 인정하는 사람(요일 2:23; 4:15).

- (4) 궁핍한 자에게 주는 사람(요일 3:17).
- (5)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요일 3:16).
- (6)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히 12:4-7).
- (7)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사람(요일 3:24; 마 7:21).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19-21).

### 요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것은 사람이 그분과 나눌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이다. 비록 그분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실지라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로서 그분은 아들보다 더 크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는다(마 7:7-12).

### 보충연구

1. 사도 요한에 의한 하나님의 부성에 관한 가르침들
  - 요한복음 14-17장을 읽으시오.
  - 요한일서 3-5장을 읽으시오.
  -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참고자료들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참고자료들을 적으시오.

2. 아래의 예수의 비유들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토의하시오.

- |                |                |
|----------------|----------------|
| (a) 밤중에 찾아온 친구 | 누가복음 11:5-13   |
| (b) 혼인잔치       | 마태복음 22:1-14   |
| (c) 두 아들       | 마태복음 21:28-32  |
| (d) 잃은 양       | 마태복음 18:10-14  |
| (e) 악한 소작인들    | 누가복음 20:9-18 ■ |



### 제3장

## 하나님의 아들 예수

### Jesus, the Son of God

이 장(章)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했어야했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좀더 충분히 알게 하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가르쳤다. 바울은 그분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고후 9:15)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롬 14:9)요, “영광의 주”(고전 2:8)이시며,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엡 2:20)이요, “교회의 머리”(엡 5:23)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근원”(히 5:9)이시고, “세상의 구주”(요 일 4:14)라 불리신다. 사도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에게 신성(골 2:9)이 깃들어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신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예수는 구원의 근원이심을 주장하셨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고, 또한 예수를 믿어야 했다(요 14:10). 그분을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막 9:42)고 하였다. 그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요 8:24). 그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였다(요 16:8-9).

예수는 사람들이 당신을 숭배해야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셨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셨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 그들은 그분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나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경배하였다(요 9:35-38). 예수께서 예배받기를 거절하신 사례가 없다.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그렇고(행 10:25-26), 천사의 경우에서도 그렇다(계 22:8-9).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할 것을 권장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성자들과 선한 천사들이라도 경배받기를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마 23:8-10).

예수께서는 당신위에 무엇이나 다른 누구도 놓이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고, 인간들의 삶 속에 첫째 자리를 요구하셨다. “나를 따르라”는 어떤 타협도 용인하지 않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7-38).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마 23:10).

따라서 여기, 전 세계 어느 누구나 무조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제 갓 서른이 지난 한 젊은이가 있다.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분에게 합당치 않을 것이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는 오로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만  
구원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을 주장하셨다.**

예수는 단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이 그 길 자체였다고 말씀하셨다(요 14:6). 그분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분은 기독교의 중심이시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요 14:6).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 10:32-33; 요 8:24; 12:48; 막 8:35-38).

그분의 일은 다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야 한다(요 2:19-22; 3:14; 막 8:31; 9:31; 마 16:21; 눅 9:22).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마 20:28).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마 26:2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요 10:17-18).

하나님의 어린양은 세상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눅 24:46-47).

### 예수는 그분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셨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주장하셨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막 2:5). 그분은 죄 사함

을 그분 자신의 인성과 연결시키셨다. 서기관들이 신성모독 죄로 예수를 고소하여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7)고 하였다. 신성 모독에 대한 고소를 반박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막 2:10)고 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의 병 고치는 기적의 권세를 과시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라고 주장하셨다.**

그분은 “세례를 주라”는 대위임에서 아버지와 성령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동등한 신성과 권세를 주장하셨다(마 28:18-20).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 요약

예수는 무시당하실 수 없다. 그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로써 내려와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고 부활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른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셨다. 어떤 이들은 그가 미쳤다(막 3:21)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요 10:20), 바알세불이 지폈다(막 3:22)고 하였다. 만약 그분이 자신이 주장했던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 구주”(딤후 1:4)시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보충연구

1. 예수는 '모퉁잇돌'이라고 불린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고 한 말씀에서 그분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2. 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인자와 동일시하였는가? (요 3:13; 5:27; 6:53; 마 9:6; 눅 21:27).

3. 히브리서 9장 11-28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함을 줄 수 없으신가?" ■



## 제4장

## 성령

## The Holy Spirit

성령에 관한 신구약 성경 모두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한 강좌로 끝내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많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령과 그분의 사역을 알아가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몇 성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은 성령께서 우주창조 때 협동하셨다고 가르친다(창 1:1-2, 26). 또 그분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삿 6:34; 11:29; 14:6; 출 31:3; 민 11:17,25; 삼상 16:13-14; 느 9:20). 구약성경 자체의 기록은 성령께서 이루신 한 업적이며, 왜 그것이 신약성경에 의해서 완성되는지, 즉 신구약이 합하여 한 권의 성경책이 되는지를 표명한다(삼하 23:2; 숙 7:12; 뎀후 3:16; 벨후 1:21). 구약성경에서의 성령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토록 하여 그분의 인성과 사역이 인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보이게 하셨다.

### 성령은 신성한 인격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찾아내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 또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롬 8:27; 고전 2:10-11). 그분은 사랑을 갖고 계신다(롬 15:30). 그분은 상처 입을 수 있는 감정과 속성들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신성 모독할 수 있고(마 12:31-32), 속일 수도 있으며(행 5:3), 배척할 수 있고(행

7:51), 근심케 할 수도 있으며(엡 4:30), 모독할 수 있고(히 10:29),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불을 소멸할 수도 있다(살전 5:19).

### 성령은 사도들에게 약속되었다.

예수는 성령의 도래로 사도들이 도움 받게 될 것을 그분의 공생애 기간에 사도들에게 확언하셨다(마 10:17-20; 막 13:11; 요 16:12-15; 눅 24:45-49; 행 1:4,8). 이 약속들의 성취가 사도행전과 다른 신약성경의 기록들에서 보도 되고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11)는 것을 그들은 들었다. 이 약속은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졌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행 2:4)를 주셨고, 이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다(행 2:36-41). 사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행 2:1-4),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주셨으며(행 3:2-10),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다(행 6:6; 8:5-8, 17-19; 19:6).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주는 이 은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성경에는 없다. 안수례를 행한 그 밖의 사례들을 보면, 안수례는 어떤 특별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행 13:3; 딤후전 5:22).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그들의 설교가운데서 인도하셨던 분은 성령이었다(행 8:39; 11:12; 13:4; 16:6-7).

### 성령은 침례 받은 신자들에게 약속되었다.

회개와 침례 가운데서 복음에 순종했던 자들은 성령으로의 선물을 약속받았다(행 2:38; 5:32). 종종 이것은 보통의 은사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적적인 권능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침수세례 신자들에게 약속되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신 성령의 내주임재는 그들에게 증언하시며(롬 8:16) 그들이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롬 8:26).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엡 1:13-14). 그분은 그들을 성화시키시며(롬 15:16; 고전 6:11),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그들을 대신해서 간구하시며(롬 8:26), 그들을 인도하신다(롬 8:14). 몸은 성령의 성전이다(고전 6:1-20). 갈라디아서 5장 22-25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때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롬 8:11).

바울은 말하기를, “세례도 하나이요”(엡 4:4-5)라고 하였고, 그것은 언제나 성령으로의 선물과 연관되어진다(행 2:38). 그것은 대위임의 침례이자, 세상 끝 날까지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마 28:18-20).

### 성령의 침례(부어주심)

신약성경에는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에 대해서 두 번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은 오순절 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행 2:1-4). 이 경우 강한 소리와 더불어 사도들 위에 내린 불꽃으로 집안에 가득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른 나라 말들을 할 수 있었고 기적적인 사역들을 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기록한 글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관한 것이었다(행 10:44). 그 경우는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행 10:47; 11:1-18). 그것은 그들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행 15:9; 11:18; 10:47-48), 물 침례를 대신하지도 않았다(행 10:47-48). 그것은 오순절 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침례에 관련이 있었다(행 11:15).

### 요약

“성령도 한 분이시다”(엡 4:4). 그분은 종종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창조 때(창 1:1-2,26), 예수의 침례 때(마 3:16-17), 예

수의 가르침 속에서(요 14:16), 그리고 대 위임(마 28:19)에서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또 세분 모두 천상에서 함께 언급되고 있다(계 14:1,13).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7).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행치 않으신다. 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잃은 자들을 인도하여 예수를 발견케 하신다.

### 보충연구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성구들은 다음과 같다.

시편 51:10-12; 143:10; 이사야 63:8-14; 요엘 2:28-32; 요한복음 16:5-15; 갈라디아서 5:16-26; 계시록 22:17-20. ■

## 제5장

# 성령의 특별 은사들: 방언, 예언, 신유

## Special Gifts of the Holy Spirit: Tongues, Prophecy, and Healing

성령의 특별은사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많은 혼란과 분열이 발생되고 있다. 제4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7). 그분은 자신의 말씀 즉 영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 것도 행치 않으신다(딤후 3:16; 벰후 1:21).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특별은사들의 문제와 관련된 혼란과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교회일치

예수는 교회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요 17:22). 또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고전 1:10). 분열의 일부는 구약율법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한 채(롬 4:13-25; 갈 3:25), 유대인의 관습들을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에게 지키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야기되었다(행 15:1-2). 분열의 다른 일부는 성령의 특별은사들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전 12-14장). 우리는 교회일치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보존되어야 하며, 성령께서는 교회의 친교를 무너뜨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 방언 말함

신약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방언 말함의 사건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도들의 것이었다(행 2:1-12). 이것들은 다른 방언들, 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방언들로 불린다. 성경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들이 전에 사용해 본적이 없는 언어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들 언어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많은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행 2:8). 그것들은 말하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언어들이었지만,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

다음으로 언급된 사건은 고넬료 가정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언을 말했던 사건이었다(행 10:46).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에 그 사건을 비교하였다(행 10:47).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말한 방언들 역시 말하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언어들이었지만, 듣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에게 침례를 베푼 후 안수하였을 때에 발생하였다(행 19:6).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세 가지 사건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을 거론하였고, 방언 말함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였다.

1.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고전 12:3).
2.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이다(고전 14:10; 12:30; 14:5,13,28).
3. 교회에 통역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은 이들 언어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14:27).
4. 방언 말함은 임시적이었고, 언젠가 그칠 것이었다(고전 13:8).
5. 방언 말함은 좀 덜 중요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전 12:31; 14:1).
6. 방언으로 말했을 때, 말하는 자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전 14:14).
7. 교회의 덕은 방언 말함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몇몇 은사들로 인하여 세워졌다(고전 14:12).

따라서 질서 있는 예배와 적절한 행동(고전 14:39)을 위해서 바울은 방언 말함을 금하지 않았으나(고전 14:39) 공중예배 때에 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는 방언 말함을 미숙한 것(고전 13:11)으로 보았고, 대중에게 말하는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전 14:19)고 제안하였다.

방언 말함은 교회에서 누가 더 신령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잣대로 결코 주어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잣대로써 방언 말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고전 14:22)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활동이지, 말하는 사람의 선함이나 능력이 아니다.

### 예언

성경에서 선지자는 더 높은 영적권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삼상 3:20),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의 선지자들(왕상 18:19), 그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막 13:22)에 관해서 읽게 된다. 선지자는 미래에 관해서 말할지도 모르나, 종종 과거와 현재에 관해서 말한다(삼상 15:10-34; 삼하 12:1-10). 그가 말하는 것은 근원에 따라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고, 만일 그것이 거짓 신에게 온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엡 4:11; 행 11:27; 13:1). 또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벧후 2:1; 요일 4:1; 살후 2:2). 초대교회 당시 신약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못했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와 사도들의 말씀들을 연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남성과 여성들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행 21:8-9).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들을 받았다.

사도들은 교회가 예언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1. 예언의 은사는 한 몸 교회를 이루는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다(롬 12:4-6; 고전 12:10).
2. 예언의 은사는 언젠가 그칠 것이었다(고전 13:8).
3. 예언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만큼 크지 않았다(고전 13:2).
4. 예언의 은사는 방언 말함보다 더 많이 사모해야 할 은사였다(고전 14:1,5,39).
5. 예언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전 14:3).
6. 예언은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은사가 선지자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은사를 통제하기 때문이다(고전 14:32-33).
7.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 있어야 한다(고전 14:29). 이것은 예언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말을 테스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살전 5:19-21; 요일 4:1).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시기적으로 한정된 은사였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구입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신약성경을 통해서 진리 즉 예수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은사는 질병이나 가족문제 또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교회는 선지자임을 주장하는 자들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기적

기적이란 무엇인가? 혹자들은 기적은 결과든 시간이든 자연법칙에 어긋나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것이다. 기적에 있어서 “즉시”란 말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로 볼 때 기적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좀더 특정한 사용에 기적이란 말을 쓴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과 가르침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

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읽게 된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들이다.

1. 예수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마 9:4-7; 12:1-14; 막 1:21-28; 눅 5:21-26; 요 6:14.

2.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보상을 받는다. 마 15:21-28; 막 2:5; 5:34; 1:52; 눅 7:1-10.

3. 기적은 믿음을 장려하였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 마 16:5-12; 막 5:36; 눅 7:18-23.

4. 하나님은 인간의 궁핍에 대한 동정에 감동받으신다. 마 14:14; 20:29-34; 막 1:41; 6:34; 눅 7:13.

5.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마 17:24-27; 눅 7:11-17.

예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눅 4:40-44), 마지막에는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다(요 3:14-17).

사도들의 기적은 종종 “표적”(행 2:43)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권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확신하였다(행 3:12-13).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빌 2:25-28; 고후 12:7-9; 딤후 5:23). 하나님의 목적들에 부합될 때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다. 사도행전 28장 1-10절에서 우리는 말타섬에 있는 바울과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을 보게 된다. 8절에서 바울이 한 남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적으로 그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된다. 9절에서는 그 밖의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그들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

초대교회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는 신유은사였다(고전 12:9). 우리는 이 은사를 “즉시” 고침 받는 것을 뜻하는 기적에 의해서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한다. 또 장로들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약 5:14-15). 그

러나 치유를 일으킨 것은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치유하신다.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이유로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는가? 만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치유를 기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자.

### 요약

성령께서 주신 특별은사들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성령은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결단코 행치 않으실 것이다. 성령은 교회에 분열을 야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은 은사들이 임시적이라고 말하나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그들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공중 예배 때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오늘날에도 크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특별은사들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사랑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고전 13:13).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 보충연구

1.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성숙한 행동과 미숙한 행동을 구별하였는가를 살펴보라.
2. 예수와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들을 모두 찾아보고, 각각의 기적이 발생한 목적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

제6장  
성경, 하나님의 말씀  
The Bible, God's Word

아이들이 부르는 짧은 노래가 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다.

성경, B-I-B-L-E,  
성경, 나를 위한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지요,  
성경, B-I-B-L-E.

The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비록 아이들의 노래지만, 두 가지 커다란 진리를 담고 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고, 둘째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란 것이다.

“성경”이란 말은 단순히 “책”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인 하나님의 책이다. 그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창조를 통한 세계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성경은 스스로가 밝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른다(히 4:12; 살전 2:13). 성경은 우리

에게 전달된 “살아 있는 말씀”을 포함한다고 말한다(행 7:38). 또 성경은 스스로 성경(聖經) 즉 기록한 말씀이라고 부른다(롬 1:2; 딤후 3:15). “경(經)”이란 말은 “글”을 의미한다. 이 말은 예수와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말이다(마 21:42; 롬 15:4).

성경은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경이 39권이고 신약성경이 27권이다. 이 책들은 1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되었다. 모세는 주전(B.C.) 1400년 전에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였다. 신약성경의 책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대략 70년 이내에 기록되었다.

비록 수많은 다른 저자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였지만,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한 진술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율법서라 불리는 성경의 첫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점을 이미 언급하였다. 율법들과 계명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돌 판에 기록되었고, 모세가 받아 전달하였다(출 24:12). 또 하나님은 다윗 왕(삼하 23:2)과 같은 사람들이나 예레미야(렘 1:9)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역시 그들의 기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들을 검토해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과 그렇게 쓰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도우실 것이라고 하셨다(요 14:26).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예수의 말씀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안다.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한 가지는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다는 입증은 받았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출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은 그분의 출생(미 5:2; 눅 2:1-7), 그분의 죽음(사 53:9,12; 눅 23:33), 그분의 부활(시 16:10; 마 28:1-6)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는 것은 중요하나 그것은 단지 첫 단계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하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사실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롬 3:23). 야고보서 1장 21절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안다할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길이다.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이다.(벧전 2:2). 우리가 사단의 공격들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지식이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마 4:1-11).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계획들에 대항하여 맞서기 위해서는 말씀들을 사용해야 한다(엡 6:11,17).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읽어서는 안 된다(시 1:1-2).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학습의 연장이어야 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것이 된다(약 1:22-25).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개과천선할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가치 있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딤후 3:16-17).

또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계 22:18-19).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며 사용할 수  
있겠는가?

1. 기도로 시작하라(요 16:13-15). 성령께서 당신의 눈과 마음과 정신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2. 당신이 읽었던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반복하고 고치고 요약하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도록 하라.
3.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노트에 적도록 하라.
4. 당신의 노트에 다음의 질문들을 묻거나 그 대답들을 적도록 하라.
  - 이 구절에서 주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는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 이 구절의 핵심 요절은 무엇인가?
  - 이 구절은 예수에 관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 이 구절은 내가 고백하고 끊어야 할 내 삶 속에서 지은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는가?
  - 내가 이 구절에서 순종해야 할 어떤 명령이 있는가?
  - 내가 이 구절로부터 받아야 할 어떤 약속이 있는가?
  - 내가 따라야 할 어떤 지시가 있는가?
5. 말씀을 암기하라(시 119:15-16).
6. 당신이 읽고 연구했던 것을 귀하게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

## 제7장

## 성경의 교회

## The Church of the Bible

교회는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A.D. 30). 성령의 오심과 첫 번째 구원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었으며, 죄 사함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교회는 3천 명가량으로 시작되었다(행 2:37-41). 교회는 믿는 자들의 친교이며, 예수에 의해서 세워졌다. 따라서 그분의 사역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상에서 계속되고 있다(행 1:8).

신약성경에는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를 기술하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교회는 신랑 예수(요 3:29) 그리스도의 신부이다(엡 5:22-32; 계 21:2). 교회는 건축자이시며(마 16:18), 중요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물이다(고전 3:9).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골 2:19) 그리스도와 관련된 살아있는 몸이다(고전 12:18-27; 골 1:18; 엡 1:22-23). 교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엡 2:22) 성전이다(고전 3:16; 엡 2:21).

## 교회에서의 권위

교회에 관한 위의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가 예수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분은 머리이시며, 신랑이시고, 건축하신 분이시다. 교회에 관한 설명은 또한 교인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몸의 지체들이며(고전 12:12-27), 머리의 지시를 받으면서 서로 의존한다. 건물의 각 부분으로써(엡 2:22; 벧전 2:5)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설명들을 통해서 볼 때, 권위는 인간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 교인이 되기

교인이 되는 것은 세상의 조직에 가입할 때처럼 교회에 가입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사람은 중생(요 3:3)을 통해서 교회에 더하여 진다(행 2:4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롬 3:23), 하나님의 가족에서 분리되어 살아왔다. 죄인들은 악의 세상에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롬 6:23).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였다(요 14:6). 예수는 우리의 형벌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골 2:13-14).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옛 삶에 대하여 죽고(롬 6:2-6), 새로운 피조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으로써 교인이 된다고 가르친다(롬 6:4). 이 거듭남이 그리스도인 침례에서 일어난다. 거듭남은 믿음(요 3:36; 행 16:30-31)과 회개(눅 15:11-24)와 고백(마 10:32-33)과 침수 세례를 요구한다. 침례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수세기에 걸쳐서 무지와 혼란과 거짓 교리가 교회를 많은 교파들로 나누어놓았다. 이들 교파들 가운데 일부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이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의 명령들과 사례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이 방법에서만 우리는 일치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 16:16).

## 보충연구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 모습대로 교회를 회복 시키고자 한다면, 회복시켜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우리는 교회와 교인들을 분간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이름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 a. 신약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사용한 이름들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롬 16:16),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엡 1:22-23),  
 하나님의 교회들(the churches of God/고전 11:16),  
 하나님의 집(the household of God/딤후 3:15),  
 하나님의 양떼(the flock of God/행 20:28),  
 장자들의 교회(the church of the firstborn/히 12:23),  
 성도들의 교회(the church of the saints/고전 14:33),  
 교회(church/행 2:47).
- b. 신약성경에서 교인들에게 사용된 이름들  
 그리스도인들(행 11:26; 벰전 4:16),  
 제자들(행 11:29),  
 형제들(행 11:29),  
 하나님의 아들들(롬 8:14),  
 성도들(롬 1:7),  
 하나님의 자녀들(롬 8:16; 요일 3:1).

2. 우리는 교회의 의식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 a. 침례(제8장을 보라)
- b. 주의 만찬(제9장을 보라)
- c. 주의 날(제10장을 보라)

3.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에 의한 재정후원을 회복시켜야 한다.  
 제11장을 보라.

4. 우리는 교회의 정치와 조직을 회복시켜야 한다.

제12장을 보라.

5. 우리는 교회의 선교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장을 보라.
6. 우리는 교회의 사역들을 회복시켜야 한다. 제14장을 보라.
7. 우리는 신약성경이 가르치고 실천하였던 예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15장을 보라. ■

## 제8장

# 신약성경에서 시행된 침례

## Baptism As Practiced in the New Testament

침례의 기원에 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왔다.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서 발견된다.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요 1:24-25). 그것은 침례가 그들에게 새로운 관행이었거나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마 21:25; 요 1:6). 또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교회에 침례의식을 주신 근원자이시다(행 2:4,38).

###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었는가?

1. 그것은 물에 사람을 침수시키는 것이었다.
  - 그것은 많은 물을 필요로 했다(요 3:23). 요한은 종종 물이 많은 장소들에서 설교하였다(마 3:5-6).
  - 요한과 침례를 받는 사람 모두 물로 내려가야 했고, 또 물에서 올라와야 했다(마 3:16; 막 1:10).
2. 요한의 침례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다(행 19:4; 눅 3:8).
3. 요한의 침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였다(눅 3:10-14).

### 교회가 시행한 침례는 무엇인가?

1. 그것은 침수세례였다.
  - 그것은 물을 필요로 하였다(행 8:36; 10:47).
  - 침례를 행하는 자나 침례를 받는 자가 모두 물로 내려가야 했고, 또 물에서 올라와야 했다(행 8:38-39).
2.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배우고 믿기에 충분한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막 16:16; 마 28:19; 행 16:31-33).
3.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행 2:38; 22:16).
4. 그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수단이다(행 2:38; 19:2-7).
5.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이며, 죄 중에 거하던 옛 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부활의 상징이다(롬 6:2-10; 골 2:12).
6.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의 상징이다(벧전 3:20-21).

###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가?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예수의 이름만으로 베풀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행 19:5; 2:38; 10:48).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만 침례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마 28:19). 우리가 염두에 뒤편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사이에는 어떠한 경쟁이나 질투도 없다. 오로지 일치만 있을 뿐이다. 그분들은 한 이름을 갖는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자세히 보자. “이름”이란 단어가 복수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나온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지시한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만으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예식문의 적절한 구사가 구원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잘못된 순서 가운데서 말씀을 취할까, 또 그로 인해서 침례의 행위

를 망가뜨리지 않을까하고 두려워한다. 이것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조상숭배나 요술에 더 가깝다. 우리가 적절한 언어나 의식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수세례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즉 죽음을 생각나게 하신다.

### 몇 번까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받아야 하나?

에베소서 4장 5절은 “침례도 하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침례이다. 어떤 교회들은 세 번,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번,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한 번씩 베푼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들의 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이미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침례를 베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타락하였다가 되돌아올 때마다 새로 침례받기를 원한다.

사람은 몇 번 태어나는가? 죽은 사람은 몇 번 매장되는가? 예수를 믿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였고, 물 가운데서 장사된 후 부활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으며,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으며, 성령의 내주동거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이치에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은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신다. 침례가 교인이 되는 출발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나?

성경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예수를 믿는 신앙고백에 따라 즉시 침례를 받았다. 어떤 교회들은 침례를 베푼 자격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푼기 전에 일정기간 학습교육을 마치게 한다. 만일 침

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얼마간 지체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을 오랫동안 침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신약성경교회에서 행했던 전통(관행)이 아니다.

### 누가 침례를 줄 수 있는가?

신약성경은 침례를 베풀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를 베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적절하고 올바른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침례의 행위는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에 대한 경건한 회상이어야 한다. 만약 그것에 확신이 서면, 교회는 누가 침례를 베풀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목회에 관한 다른 신약성경의 가르침들을 따라야 한다.

### 보충연구

사도행전을 훑어가면서 침례에 관련된 사례들을 연구하되, 상기한 질문들에 어떻게 해답이 주어지는가를 알아보라. ■

## 제9장

## 주의 만찬: 새 언약의 상징

## The Lord's Supper: Symbol of a New Covenant

주의 만찬이 “유월절”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월절 식사와 주의 만찬은 크게 다르다. 그것들은 두 개의 다른 언약들을 대표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옛 언약의 일부이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희생양의 피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어떠했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채소들을 필요로 한다. 유대종족과 유대교에 속했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때에 유월절 식사를 드셨고, 그 때에 예수께서 새로운 식사, 즉 주의 만찬을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다(마 26:17-29; 막 14:12-25; 눅 22:7-23; 고전 11:17-30). 예수는 이 새 언약의 식사에 다른 의미와 상징을 부여하셨다.

죄 사함에는 피가 요구 된다(히 9:22). 옛 언약의 동물희생 제사들은 예배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히 9:9). 그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의 피, 즉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영원토록 동물희생 제사들을 대신해야 하며(히 9:12),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소를 개방하여야 한다(히 9:24; 10:11-14).

그러므로 예수는 잔을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칭하셨다(마 26:28; 막 14:24; 눅 22:20; 고전 11:25). 그것은 죄를 사하는 그의 피다. 그분은 빵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린 내 몸이다”고 하셨다. 그러나 잔에 대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효력을

갖는다.

###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참여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초청이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이다. 그러나 그것이 새 언약의 축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 언약의 축복들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롬 3:23).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완전하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을 축하한다.

### 어떻게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가?

성만찬 예배 순서에 관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예배 때의 무질서(고전 11:17-22)와 삶에서의 무질서 그리고 개인의 태도를 경고하는 말씀들은 있다(고전 11:27-30). 기도들과 찬송들 그리고 분병과 분잔의 적절한 순서에 관해서 쓸데없는 논의로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모되고 있다. 예수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의사가 없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

누가 성만찬의 집례를 주관해야 하는가에 관한 관심도 표명되었다. 이 부분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내의 활동들의 운영에 관한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에 비춰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주의 만찬의 권세는 집례하는 사람에 있지 않고, 떡과 잔을 파는 회사에 있지도 않다. 권세는 예수의 구속의 죽음과 그의 피로 사신바 된 새 언약 속에 있다.

### 언제 주의 만찬은 제공되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목요일(유대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고, 처음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한 것은 오순절날인 주일이었다. 헌금이 매주일 드려진 것처럼(고전 16:2) 성경은 주의 만찬이 매주일 초대교회에 의해서 행하여졌음을 시사한다(행 20:7).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고, 이집 저집에서 떡을 떼었다(행 2:46).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주의 만찬이 매주일 주 첫날에 정규 예배 때에 지켜지도록 의도하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새 언약을 축하한다.

### 보충연구

무엇이 주의 만찬의 메시지인가?

1. 예수는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마 26:28).
2. 예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막 14:24).
3.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여 먹고 마신다(눅 22:19).
4. 한 덩어리의 빵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고전 10:16).
5. 한 덩어리의 빵에서 쪼개지는 많은 작은 조각들은, 비록 우리가 수적으로 많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고전 10:17)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6. 만일 우리가 거짓 신들을 위한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전 10:21).
7. 주의 만찬은 참여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전 11:17,27,30).
8. 주의 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선포한다(고전 11:26).
9.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켜지도록 되어있다(고전 11:26). ■



## 제10장

# 주의 날: 자유를 기념함

## The Lord's Day: Celebrating Freedom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계 1:10).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당하여 있으면서 예배드리던 날을 기술한 방법이다. 이 “주의 날”이란 표현은 성경에 단 한차례 사용된 말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보통 “주의 날”이 주 첫날을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

### 무슨 요일에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가?

주 첫날은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날이었다(고전 16:2; 행 20:7). 그 날은 주의 만찬을 행하고, 설교말씀을 듣고, 토론하며, 교회에 헌금하는 정규적인 시간이었다. 그 날은 교회가 한 가족으로써 축하예배로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일 예배할 의무를 갖는다. 기도하고(눅 18:1; 엡 6:18), 성경을 연구하며(행 17:11), 헌신적인 삶을 살며(롬 12:1),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전 15:58). 이것은 개개인의 책임이며 매일의 의무이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은 주 첫날이다.

### 왜 초대교회는 주 첫날에 예배로 기념하였는가?

교회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서 출발된다.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기념될 수 있도록 우리는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는다(롬 6:3-5; 골 2:12).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전 11:25-26; 눅 22:19).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날을 축하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 첫날에 모였다(마 28:1-7; 막 16:2-7; 눅 24:1-8; 요 20:1-2; 행 2:1).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날이었다.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은 그 날이 특별한 안식일 날에 있었기 때문에 “상위 유월절”(high Passover)이었다. 예수는 금요일인 예비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마 27:62; 눅 23:54).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다(막 27:62). 그리고 그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다(요 19:31-34).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오순절)째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었고, 그 날이 주 첫날이었다.

### 왜 우리는 예배로 모이기 위한 날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창 2:2-3; 출 16:23; 20:8-11).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고, 일하지 않고 쉬으로써 기억되어야 할 날이었다(마 12:1-13). 바벨론포로기 때 회당예배가 시작되기까지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아니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권면을 받는다(골 2:16-17, 20; 갈 4:10-11).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의 율법아래 있지 않다(행 15:10-11; 롬 4:13-25; 갈 3:25; 골 2:20-23; 히 9:9-1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갈 3:19-22).

### 왜 예수와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예배에 참석하였는가?

예수의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다른 구약성경의 율법들은 물론이고 안식일 요구들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자유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안식일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의 설교는 많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만일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듣기를 거부하면, 바울은 회당을 떠날 것이었다(행 18:7; 19:9).

자유로운 사람들로써 우리는 주중 아무 날 아무 시에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교회가 주 첫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함께 모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무엇이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키려하는 것에 잘못인가?

1. 만일 당신이 한 가지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킨다면, 당신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갈 3:10).
2. 율법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의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갈 3:19,24; 롬 5:20-21).
3.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엡 2:14-15; 골 2:13-14; 히 7:18-19; 8:13; 10:9).
4. 사도들은 교회에 구약성경의 율법들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 a. 모든 음식들은 깨끗하다(막 7:18-19; 고전 10:25-26; 골 2:16; 딤후전 4:4).
  - b. 할례는 필요치 않다(고전 7:18-19; 갈 5:2; 6:15).
  - c. 특별한 날들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골 2:16-17).
  - d. 동물희생 제사들은 어떤 가치도 없다(히 9:9-10, 12; 10:3-9).
  - e.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다(갈 5:1).

### 요약

우리는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주 첫 날, 즉 주의 날을 지킨다. 그 때에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고, 헌금을 드리고, 설교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공부한다. 그 날은 성령께서 교회에 임재하심과 예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쉬는 날이었다. 그 날은 본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함께 모이는 날이 아니었다. 그렇게 된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안식일 준수는 율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효력을 갖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금하는 일이다. 예수는 죄와 율법으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 보충연구 및 논의

1. 히브리서 4장 1-11절을 토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안식이다.
2. 의례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보다는 심령의 상태로써의 예배를 토의하십시오. (시 51:3-6; 삼상 15:19-23; 미 6:6-8; 사 1:10-17; 말 1:10-14; 마 7:21)
3. 왜, 새로운 날, 즉 주의 날이 새 언약의 축하인가를 토의하십시오. (렘 31:31-34; 히 8:7-13) ■

## 제11장

# 십일조와 헌금

## Tithes and Offerings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 27:30).

구약의 율법아래서 하나님은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도록 명령하셨다. 상기한 레위기서의 말씀은 십일조가 성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었고, 불복종했던 자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다.

### 십일조란 무엇인가?

십일조는 십분의 일의 몫이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 종종 십일조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상기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몫은 사람들이 받은 모든 것에서 드러져야 한다는 것을 본다. 만일 열 마리의 염소나 병아리가 일 년에 태어났다면, 열 마리 가운데 한 마리씩은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밭이나 정원에서 열 가마의 곡식이나 열 바구니의 과일을 거두었다면, 열 가마나 열 바구니 가운데 한 가마나 한 바구니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둔 것이 소 떼든, 가금류든, 계란이든, 옥수수나 기름이든, 각각의 십분의 일은 성물로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

### 언제부터 십일조가 드러졌는가?

십일조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을 전달하기이전부터 시작된 매우 오랜 관행이다. 십일조에 관한 최초의 성구는 창세기 14장 18-20절에 나오며, 여기서 아브라함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거둔 모든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 이 십일조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 히브리서 7장 1-10절에서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십일조의 성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예롭게 하는 지속되는 관행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히 7:3,8). 언제부터 이 관행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위대하신 분께 영예와 존귀를 보이는 한 방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을 안다.

###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말 3:8-12). 말라기의 관심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그들 자신들의 몫으로 남겼고,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은 병들고 상처 입은 동물이었다는데 있었다(말 1:13-14).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쓸 요량으로 노획물을 숨겼고, 그 결과로 그는 그의 왕국을 잃었다(삼상 15:7-11). 아간(수 7:24-26)과 아나니아와 삽비라(행 5:1-11)는 하나님께 속한 헌물을 숨겼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처벌받는다.

### 무엇을 신약성경은 헌금드림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1. 예수는 십일조를 마땅히 받을 만하시다고 가르친다(히 7:1-10).
2. 하나님은 바침에 대한 완벽한 모범이시다.
  - a. 로마서 5장 8절 -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주셨다.
  - b. 야고보서 1장 5절 -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 c. 야고보서 1장 17절 - 하나님의 선물들은 온전하다.

- d. 고린도후서 9장 15절 - 하나님의 선물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 e. 고린도후서 8장 9절 -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은 그가 가난할 때까지 주셨다.
3. 하나님은 헌물을 바치기 전에 그들 자신들을 바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친다(고후 8:5).
  4. 우리의 바침은 우리가 거둔 수입에 비례하는 것이다(고전 16:2).
  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바치는 것에 비례한다(눅 6:38; 고후 9:6,10-11).
  6. 그리스도인의 바침은 교인들을 균등하게 한다(고후 8:13-14).
  7. 그리스도인의 바침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이다(고후 8:8,24).
  8. 바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다(고후 8:1).
  9. 각자 그리스도인은 얼마를 바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후 8:3-4).
  10. 우리의 바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이다 (고후 9:12).
  11. 바침은 정기적으로 매주 행해져야한다(고전 16:2).
  12. 바침은 자원하여 즐겁게 행해져야한다(고후 9:7).
  13. 우리의 바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행해져야한다(마 6:1-4).

### 보충연구

예수는 개인재산의 사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마 5-7장), 다른 많은 교훈들도 주셨다.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하십시오.

1. 삶에는 부(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눅 4:4).
2. 심지어 십일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눅 11:42).
3. 탐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로막는다(눅

12:29-31; 16:13).

4.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로막는다(눅 12:32-34).

5. 개인의 부(富)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가로막을지도 모른다(눅 18:18-25; 21:1-4).

바침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도들 사이에 관행상 취약한 분야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

## 제12장

## 교회의 통치

##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그리스도의 교회는 설립자이시며, 머리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자신과 더불어 살아있는 기관이다(골 1:18; 엡 2:19-20). 처음에는 교회가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지만(행 2장), 교인이 늘어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교회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는 이런 교회업무를 전담할 사람으로 일곱 명이 뽑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은 그들을 “봉사자”(willing servant)로 기술하고 있고, 이 말의 뜻은 집사이다. 성경이 그들에게 집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들은 최초의 집사로 언급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스테반과 빌립 두 사람은 매우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져 있다. 빌립은 나중에 전도자로 불린다.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세운 모든 교회들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였다(행 14:23). 이들 장로들은 교회를 돌보도록 되어 있었다.

신약성경에는 여러 직책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중에 장로, 집사, 전도자(목사, 설교가) 세 직책만이 항존직이었던 것 같다. 12장에서는 이 세 가지 교회 직책에 관해서만 살펴보려고 한다.

## 1. 장로, 감독, 주교

장로, 감독, 주교 이 세 단어들은 동일한 직책에 대한 다른 용어에 불과하다(벧전 5:1; 딤후 3:1; 5:1; 엡 4:11; 빌 1:1). 그리고 거의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다. 성경에서 일인 장로나 감독이 다수의 교회들을 지배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역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함께 일했던 장로들은 다수였고, 에베소나 안디옥처럼 적어도 한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다(행 20:17-37).

누가 장로 직책을 가져야하는지를 어떻게 교회는 결정하는가? 성경은 장로가 될 사람이 갖춰야할 자격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딤후전 3:1-7; 딤후 1:5-9).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격들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장로의 직무에 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 a. 장로들은 교회를 통치하도록 되어 있다(딤후전 3:5; 5:17). 그러나 강요로 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본모기를 보임으로써 해야 한다(벧전 5:3).
- b. 그들은 교회의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다(벧전 5:2).
- c.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도록 되어 있다(엡 4:12).
- d. 그들은 거짓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방어해야한다(행 20:28-30). 진리를 붙잡고 거짓교리를 반박하여야 한다(딤후 1:9).
- e. 그들은 병자들을 위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다(약 5:14).
- f. 그들은 가르치는 일의 재능을 갖추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딤후전 3:2).

## 2. 집사

집사의 특성과 삶은 장로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딤후전 3:8-12). 그러나 장로만큼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딤후전 3:6). 집사의 직무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된 것이 없다. “집사”라는 말은 “봉사자”(willing servant)를 의미한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택된 그 일곱 사람들이 집사들의 직무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에 전무할 시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들은 교회의 육적인 필요들을 돌보며, 매일 발생하는 일들의 상당한 활동들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 3. 전도자(설교가, 목사)

말씀전파에 그들의 시간을 쓰는 자들의 직무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다수 나온다. 복음전파를 위해서 부름 받은 자들을 위한 직책(행 21:8)과 특정한 직무(딤후 4:5)가 있었다. 바울은 이 직무를 목회자(minister)의 직무로 언급한다(딤후 4:6). 이 직책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의 예로는 디모데, 디도, 빌립, 마가 요한, 그리고 두기고(행 21:8; 딤후 4:5; 살전 3:2; 엡 6:21; 행 3:5)가 있다. 디모데와 실루아노는 설교가로 불린다.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자들은 복음의 대가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전 9:7-13).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들로 가르치는 자와 나뉘야 한다(갈 6:6).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자들은 그들의 성실한 사역에 대해서 존경받도록 되어 있다(살전 5:12-13).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존경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신부님”(Father)과 “성직자”(Reverend)와 같은 호칭은 하나님 한분에게만 사용되도록 예약된 칭호이다(마 23:9; 시 111:9).

### 보충연구

디모데전서 4장 6-16절에서 바울은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들을 나열한다. 얼마나 많은 자격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오.

1. 그는 실수한 사람들을 깨우친다—6절(히 13:17).
2.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다—6절(벧전 2:2; 딤후 2:15; 엡 6:17; 골 3:16; 딤후 3:16-17).
3. 그는 쓸모없는 토론을 피한다—7절(딤후 1:4).

4.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7절(고전 9:27; 딤후 2:3-5).
5.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10절(고전 3:11-15).
6. 그는 권위로 가르친다—11절 (딤후 2:15).
7. 그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자이다—12절(고전 4:16; 10:31-33; 빌 3:17; 4:9; 살전 1:5-6; 살후 3:7-9). ■

## 제13장 교회의 선교

### The Mission of the Church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의 노예상태와 형벌로부터 해방될 방도를 예비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매주 첫날을 기념하는 이유이다(눅 19:10; 요 14:6). 그러나 죄 사함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나라들로 가서 제자들을 삼으며,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셨다(마 28:18-20; 막 16:15-16; 눅 24:46-49; 요 20:2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자로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행 1:8; 요 16:13-15).

####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담과 이브의 범죄가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 3:15).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위대한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창 12:3).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의 피로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었다(엡 1:7-10).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목적을 드러내게 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었다(엡 3:10-12).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 교회의 삼 겹 선교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1. 그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제자들을 삼도록 되어 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이다. 그는 자기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스승에게 배우는 자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삼도록 되어 있고,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를 닮아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의 인격을 가르친다.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바 된 자들에 대한 열정과 전 세계를 에워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만큼 선교사역에 관여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라. 이 본문의 속독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에서 강조가 교회와 보냄(sending)에 있고 선교사나 가는 것(going)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조점은 오늘날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8장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자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의 구원의 관계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3. 그들은 침례를 받은 제자들을 가르쳐 모든 예수의 가르침을 따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가르침들을 무시한다. 초신자들을 가르칠 방법들을 계획하는 것과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신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성경지식을 높이는 것은 교회지도자들의 의무이다. 그렇게만

해도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 보충연구

1.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라.

- a. 니고데모-요 3:1-21
- b. 수가성의 여인-요 4:1-38
- c. 간음하다 잡힌 여인-요 8:1-11
- b. 소경으로 난 사람-요 9:1-38

2. 성령은 종종 우리가 행하기 전에 앞서 그 일을 행하신다. 행 2:38; 8:26-40; 9:1-17; 10:1-48

3. 성경을 항상 휴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의 성구들은 외우는 것이 좋다.

로마서 3: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23-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답을 예비하셨다.

사도행전 4:12-구원은 예수 안에서만 발견된다.

누가복음 13:1-5-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

마태복음 10:32-33-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한다.

사도행전 2:38-죄 사함과 성령으로의 선물은 침례를 통해서 온다.

요한일서 5:11-13-영생은 보증된 약속이다. ■



## 제14장

## 교회의 사역들

## The Ministries of the Church

하나님은 사람들의 수많은 필요들을 돌보신다. 천사들의 임무들 가운데 한 가지가 그 같은 필요들을 돌보는 것이다(시 91:11; 히 1:14). 교회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진다. 우리가 더욱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사역들을 주셨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 가운데 몇 가지를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제시하였고, 이것들에는 (1)말씀선포, (2)섬기는 일, (3)가르치는 일, (4)위로하는 일, (5)구제하는 일, 그리고 (6)다스리는 일(롬 12:6-8)이 있다. 이들 교회의 사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설교사역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세상의 구원은 말씀선포사역에 의존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고전 1:17)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제나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며 또 전파하라(딤후 4:2)고 일렀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말씀선포를 택하셨다. 훌륭한 성경말씀의 선포사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이며, 이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어왔다.

## 2. 섬김사역

교회에서 발생한 초기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과부들의 궁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고(행 6:1), 신임 받는 일꾼 사람을 뽑아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게 하였다.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이 있다.

- a.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는 일-약 1:27
- b. 병자들을 돌보는 일-약 5:14-15
- c. 접대하는 일-롬 12:13. 접대하는 일은 장로의 자질이며(딤후 3:21; 딤후 1:8),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다(히 13:2; 벧전 4:9).

## 3. 교육사역

- a. 교회의 장로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딤후 3:2).
- b.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가르쳐야 한다(골 3:16; 딤후 2:24).
- c. 나이든 여성들은 더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한다(딤후 2:3-5).

## 4. 위로사역

바나바는 격려자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행 4:36).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하였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하였다(행 11:25-26). 마가 요한의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마가 요한이 복음전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은 바나바였다(행 15:37-40).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격려해야한다. 격려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마 10:31).

## 5. 구제사역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잠 19:17; 겔 16:49). 예수께서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을 가르치셨고(눅 12:33), 사도들도 부탁하셨다(갈 2:10).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써 주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하였고(행 2:45), 나중에는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돈을 모아 보냄으로써 하였다(고전 16:2; 고후 9:1-5).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능력을 부여하셨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써야한다. 그 같은 사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6. 통솔사역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좋아하며 그것을 축재를 위해 사용한다. 통솔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모범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벧전 5:1-4).

### 보충연구

1. 사역에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무슨 사역에 종사하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마 25:14-30; 롬 12:6; 고전 4:7).
2.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셨다.
  - a. 선한 사마리아인   눅 10:25-37
  - b. 부자와 나사로     눅 16:19-31
  - c. 달란트            마 25:14-30
  - d. 양과 염소         마 25:31-46

### 3. 에이즈

오늘날 세계 도처에 에이즈가 전염되고 있다. 교회는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사역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에이즈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면 감염되지 않을까 해서 겁을 내기도 한다.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확실하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잃은 자들을 향해서 거만 떨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된다. 또 주의 깊게 모든 질병들을 다뤄야한다. 그러나 에이즈에 대한 적절치 못한 두려움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제15장

## 공동예배와 개인예배

## Public and Private Worship

"예배"는 경의를 표하는 것, 엎드려 절하는 것, 숭상과 영예를 돌리는 것, 사랑하고 찬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이나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출 20:1-6). 하나님은 조상신들이나 다른 영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신다(신 18:10-13; 레 19:31; 계 21:8). 충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짓 신들에게 결코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단 3:1-30).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는다(행 14:11-18). 예배는 하나님 한분을 위한 것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다(왕상 14:8; 15:5).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실패한 자였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 공동예배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라는 지시를 받는다(히 10:25).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소위 "예전"이라 불리는 예배의 외형적인 형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정죄하셨다(사 1:10-17; 말 1:10-14). 예배는 마음의 상태이다(요 4:23-24; 눅 18:9-14).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언급된 공동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들은 공동예배의 근본을 구성한다.

1. 사도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롬 16:17; 고전 1:21; 갈 1:6-9; 딤편 4:16; 요이 9-10). 이 행위는 대중설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토론을 포함한다.

2. 떡을 떼(주의 만찬) (제8장을 보시오).

3. 기도(행 4:31; 12:5-11; 빌 4:6; 히 4:16; 약 4:3).

4. 나눔의 친교(고후 8:4; 갈 6:6; 히 13:16). 우리가 가진 재물의 나눔은 물론이고(행 2:44-45), 피차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바울은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전 14:40)는 점과 잘못된 예배는 영적인 질병을 일으킨다(고전 11:30)는 점을 상기 시켰다. 공동예배는 상기한 네 가지 것들이 주일 아침에 이뤄지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것이다.

### 개인예배

개인예배는 예수께서 언급하셨다(마 6:5-6). 공동예배 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예배를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큰 힘을 찾으셨다(눅 4:42).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눅 6:12).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실 때(요 3:1-21),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신자는 침례로 물속에 잠김으로써 또 성령으로 하여금 그 신자의 삶 속에 영을 낳게 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낳으실 때, 그것은 맺혀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갈 5:22-24). 그 열매는 개인예배로 드러지는 시간 속에서 자라고 발전한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듣는다(엡 5:1-4).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발전할 것이다. 나쁜 언어는 감사로 바뀔 것이고, 불평은 찬양과 기도로 바뀔 것이다.

시편에서 우리는 개인예배의 좋은 사례들을 본다. 개인예배를 통

해서 다음의 것들을 할 수 있다.

1. 묵상한다(시 1:2; 39:3; 63:6; 145:5). 마음은 행동을 통제한다(마 15:8; 눅 6:45).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매우 중요하다.

2. 성경을 읽는다(시 119:105,111-112).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딤후 3:14-17).

3. 기도한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찬양을 위해 만들어진 기도문이다.

기도에 대한 다른 성구들은 사도행전 10장 9절,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포함한다.

### 보충연구

예배는 마음의 상태이다. 예배에서 가장 진실한 자질은 기도이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성실하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아래의 몇 사람들은 성공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1. 아브라함-창 18:23-33
2. 야곱-창 32:24-30
3. 모세-신 9:18-21
4. 예수-눅 22:41-46
5. 초대교회 성도들-행 12:5-17
6. 엘리야-약 5:17-18 ■



## 제16장

## 영원

## Eternity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요 14:3).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두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분이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행 1:11). 계시록은 말하기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계 1:7)라고 하였다. 예수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오실 것과 오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그물-마태복음 13:47-50

포도원의 농부들-마태복음 20:1-16

가라지-마태복음 13:24-30

혼인잔치-마태복음 22:1-24

열 처녀-마태복음 25:1-13

달란트-마태복음 25:14-30

양과 염소-마태복음 25:31-46

부자와 나사로-누가복음 16:19-31

이들 각각의 비유들에는 신실한 자들을 위한 보상과 불충한 자들을 위한 벌이 있다. 예수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치셨다.

## 지옥

지옥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마 25:41). 악한 백성들도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고전 6:9-10; 롬 2:8; 계 21:8; 22:15).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처벌될 것이다(요 3:18,36).

지옥은 무엇과 같을까? 그곳은 불과 어둠의 장소로 불린다(마 5:22; 22:13).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도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형벌이 영원할 것이다(살후 1:9).

성경은 지옥과 관련된 몇 개의 어휘들을 쓰고 있다. 스올(Sheol)은 히브리어로써 갱이나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한다. 하데스(Hades)는 헬라어로써 죽은 자들의 대기소를 뜻한다. 성경은 또한 게헨나(Gehenna)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쓰레기장의 이름으로써 온갖 냄새나는 쓰레기를 모아 불태우는 곳이 었다. 그곳은 구더기가 들끓고 구역질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역겨운 장소이다. 지옥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게헨나이다.

## 천국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요 14:2-3; 벰전 1:3-5).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들(눅 2:13)과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를 볼 것이다(골 3:1; 히 9:24; 12:22-24). 우리는 새로운 몸들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고전 15:40-49).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빌 3:21).

사도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추함을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음을 알았다(계시록). 지옥에서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눅 16:26). 그러나 두 곳 모두 지상에서 들어가야 한다(눅 16:22-23).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언제 어떻게 예수께서 돌아오실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고 싶어 한다. 사도들은 그 때를 알고자하여 물었다(마 24:3). 그러나 예수는 그 때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한다(마 24:36-51). 예수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가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2:40). 그는 도적같이 오신다(계 16:15).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한다(살전 5:2; 빌 4:5' 히 10:37; 약 5:8; 계 3:11; 22:7,20).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정확한 계획들과 사건들을 안다고 가르치고자 한다. 그들은 계시록 20장 1-10절,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7장, 11-12장을 그들의 주장들을 펼치는데 이용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재림의 때를 묻는 질문에 예수께서는 “준비하라!”고 답변하셨다.

### 보충연구

1. 예수의 예기치 못한 재림 때문에 우리는 어떤 책임과 책무를 갖는다고 신약성경은 가르친다.
  - a. 우리는 정규적으로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한다(고전 11:26).
  - b.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살전 3:11-13; 5:23; 딤후 2:11-13; 요일 3:2-3).
  - c. 우리는 깨어있어 충실해야 한다(막 13:33-37; 요일 2:28).
  - d.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전 4:3-5).
  - e. 우리는 열심히 전파해야 한다(딤후 4:1-2).
  - f. 우리는 교회를 돌봐야 한다(벧전 5:2-4).
  - g. 우리는 잃은 자들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살전 1:9-10; 2:19-20).
2.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 a.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다(고전 15:23).
- b. 우리들의 현재의 몸은 변형될 것이다(고전 15:51-52; 요일 3:1-2).
- c. 예수는 신실한 자들을 보상할 것이다(딤후 4:7-8; 벰전 5:4).
- d. 죄 사함과 구원은 재림의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된다(히 9:14-28). ■

## 부록

## 침례

Baptism by Dr. Lewis A. Foster

### 1. 침례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생애에서**-예수는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요단강에 내려오셨다. 예수의 공생애는 이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그분 위에 강림하셨으며,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그 부분을 기술한데서 이 사건의 중요성이 밝혀진다(마 3:13-17; 막 1:9-11; 눅 3:21-22; 요 1:29-34).

**그리스도의 명령에서**-사랑했던 이의 마지막 말들은 가장 중요하게 항상 다루어진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대 위임을 하셨다. 예수께서 권세로써 내린 간절한 지시와 명쾌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는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20; 막 16:15-16).

**회심에 관한 기록에서**-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명쾌하게 기술된 각각의 회심에 침례가 언급되거나 베풀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행 2:38-41-오순절; 8:32-38-빌립과 내시; 9:18,22:12-16-사울; 10:45-48-고넬료; 16:14-15-루디아; 16:33-34-빌립보 간수).

**사도의 가르침에서**-서신서들은 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침례에 관한 주제는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

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5);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벧전 3:21).

## 2. 침례의 의미

**복종의 행위**-침례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행위이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조건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한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다. 사람이 이 발표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행 2:37-38;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행 2:41).

**매장**-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매장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침례에 복종해야할 것을 아무렇게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침례의 행위 그 자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때,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었다. 비슷한 형태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는 죄로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물속에 매장되어야 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3-4;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골 2:12).

**씻음**-침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물과 씻음의 관련성은 전 세계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는데 중요한 것으로 물을 포함한 한 행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다. 물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와 침례의 물로 죄 사함을 관련지으셨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행 2:38;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연합**-침례는 그리스도의 인성과의 연합이다. 침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요한 유일한 요구조건은 아니지만, 침례는 입장을 표시하는 문지방에 해당된다. 침례 때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그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더하여진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전 12:13).

**새 생명**-침례는 성령의 선물과 연관된다. 그리스도의 삶이 매장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 또한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섬이 되고, 성령으로의 선물을 받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 3. 침례의 행위

침례의 언어는 침수를 요구한다.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된 각각의 사례에서 *밧티조(baptidzo)*라는 단어나 그것의 파생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헬리어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잠깐 담그다(dip), 가라앉히다(plunge)...(H. B. Liddell and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9th edition, 1953); “잠깐 담그다(dip), 가라앉히다(immerse)...(W. F. Amdt and F. 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Literature*, 1957); J. H. Thay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1889를 참고하십시오.

헬라어에는 “뿌리다”(rantidzo)와 “붓다”(cheo)를 의미하는 다른 특정한 단어들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 “씻다”가 밭티조(baptidzo)에 사용될 때, 그것은 반드시 그것과 더불어 특정한 의미 “침수에 의해서”를 동반한다(*Campbell-Rice Debate*, p. 99를 보시오).

**정황들이 침수를 설명한다.**-신약성경에서 모든 침례에 관한 언급들이 침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은 물론이고 많은 물이 필수였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요 3:23). 물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명쾌하게 설명된 각각의 사례에서 그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갔고, 물을 그들에게 가져오지 않았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갔고 빌립이 침례를 주었다”-행 8:38).

**상징들이 침수를 설명한다.**-침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한 설명은 침수뿐이다. 침례는 매장이고, 심겨짐(연합)이며, 씻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다-롬 6:4; 그리스도와 함께 심겨지다-롬 6:5/KJV; 너의 죄를 씻으라-행 22:16;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다-고전 10:2).

**역사가 침수를 지지한다.**-비록 다른 관행들이 침례대용으로 도입되기는 했지만, 역사는 이것들이 침수라는 본래의 관행에서 변질된 것임을 지지한다. 물을 붓는 세례가 역사상 가장 최초로 등장한 것은 주후 250년경이었다. 물을 부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노바티온(Novation)이 병상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중에 이 세례는 정통성사비를 일으켰다(Eusebius, *Hist. ecel.* 6.43.14.15). 침수이외의 다른 관행들에 대한 더 초기의 언급에서는 침수를 우선시 하거나 침수가 원조임을 부인하지 않는다(2세기 경에 기록된 『디다케』(The Didache)는 물을 붓는 세례가 수용될만하지만, 오직 침수를 위한 충분한 물이 없는 경우들에서만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다. 『디다케』 7). 천주교회가 침수를 변질시킨 최초의 교회당국자이다. 클레멘트 5세는 1305년 뿌림(그러나 물이 흘러야 한다)을 합법적인 침례로 인정하였다.

#### 4. 침례를 받기에 적합한 자들

신자-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에 결코 도달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초기 신앙이 침례의 행위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기에 너무 어린 사람은 너무 어려서 신약성경의 사례들과 일치하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주후 180년경 이래내우스는 최초로 유아침례의 정통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성경의 가르침,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यो”(막 16:16)에 위배된다.

**회개하는 신자**-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기로 한 지적인 동의에는 진심어린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



## 역자·후기

## Translator's Postscript

본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를 쉽게 풀어 썼고, 신도들이 궁금해 할만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내용이 많지 않고, 간략하여 신도들이 읽기에 용이하여 교회에서 교재로 쓰기에 매우 적합한 소책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신과 전통은 성경해석의 결과물보다는 신약 성경을 기본 틀로 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그대로 수용하여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스도의 교회 교리라고 불릴만한 내용이 필요치 않으나 성경이해의 혼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만한 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늘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서와 같은 교리서의 요청이 쇠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리서들을 읽고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리서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해석의 산물들을 절대불변의 도구마로 삼지 않는 것이며,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나 친교의 시금석(잣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이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의 유산과 전통을 이해하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9년 2월 25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